

# “수험표 분실·시험장 착오, 112에 도움 청하세요”

광주·전남 지자체·교육청 등 대입 수능 수험생 지원대책 마련

## 교통상황실·코로나 관리반 운영...시험장 구급 요원도 배치 교통약자 택시 예약...주민들 고사장 주변 교통 관리 협조를

광주·전남 지자체, 교육청, 경찰 등이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수능 지원자는 1만6720명으로 일반 시험장 38개교, 별도 시험장 2개교, 예비 시험장 1개교에서 응시하게 된다. 전남에서는 수험생 1만3995명이 21개 시·군 53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은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19 수험생 관리에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14일 현재 광주는 고3 수험생 55명, 전남은 3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확진 수험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사·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3 수험생에게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험장 방역도 진행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섬 지역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서와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섬 지역 6개교 학생 154명과 교사 9명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은 종합상황실, 교통상황실, 코로나19 관리반, 재난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 요원을 배치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시험장들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를 했으며 방역 당국은 입시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4000여 곳에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입원 치료자는 지정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광주·전남 경찰도 수험생들의 수송지원 및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입실시간 30분 전인 오전 6시부터 입실 마감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는 교통대책 상황실도 운영된

다. 이를 위해 고사장 인근에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예방한다.

고사장 주변 교통관리와 함께 인근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사전에 고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수험표 분실·미소지, 시험장 착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 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인접 순찰차나 경찰오토바이로 시험장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수험생 편의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사전 예약을 통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3교시 영여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에는 자동차 경적 등 교통 소음과 공사장, 시장 등 생활 소음도 통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의 혼잡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찰관의 교통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수능일 24시까지 광주 충장로, 상무지구 등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전국 청소년센터 연합 아웃리치’ 활동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고등학교(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5시험장)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특별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17일 ‘수능 한파’ 없지만 아침은 쌀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7일은 한파는 없지만 큰 일교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능 고사장을 찾는 학생들은 오전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옷을 챙기기 보다는 편안한 옷차림에 얇은 옷 여러겹을 껴입는 등의 체온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 전후로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수능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6도, 목포 7도, 여수 9도, 순천 5도, 나주 3도, 광양 7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광주 18도, 목포 16도, 여수 16도, 순천 18도, 나주 18도, 광양 18도로 예보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사이 내

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지거리 1km미만의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아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을 앞둔 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 물결도 0.5~2.0m로 잔잔할 것으로 예상돼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이동도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일과 수능일 모두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놓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며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 미리 수면양말이나 무릎 담요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광주학생운동 독립유공자 5명 포상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일제에 항거했던 학생 5명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7일 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이육(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선생, 박종문·이종필(광주고등보통학교) 선생, 광복녀·김소남(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선생 등 5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2019년부터 올 10월까지 전국 60개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분석해 학생운동에 동참한 학생 2596명의 학적부를 발굴하고 이육 선생 등 5명의 독립운동 활동 기록을 확인

했다. 이육 선생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에서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처분을 당했다. 학적부에는 1930년 3월 ‘가사 사정’으로 퇴학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훈처는 이밖에 미주 한인사회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지원을 주창한 함삼여 선생과 혈서 깃발을 들고 홀로 독립만세를 외친 김정희 선생 등 15명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비롯해 건국포장 13명, 대통령표창 48명 등 총 76명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만 1684명, 건국포장 1508명, 대통령표창 4472명 등 총 1만 7664명으로 늘어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국 꼴찌’

지난해 10.4%·광주 17.2%

지난해 전남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높았으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국 꼴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의료진 출동 전 일반인이 응급조치를 해 준 경우가 가장 드물었다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급성심정지조사’ 결과에 담겼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 3235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2019년 인구 10

만명당 60명→2020년 61.6명→2021년 64.7명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은 인구 10만명 당 90.0명으로 제주(101.8명), 강원(95.8명)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심정지 환자 발생률을 보였다. 광주는 10만명당 47.3명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광주 또한 17.2%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2021년 기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5.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규중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 위원장은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의 골든타임을 흘려간다면”이라며 “최대한 심장이 멎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그 사람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구급대원 심장정지 전문처치 및 영상의료지도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지방대, 유망학과 편입생 더 뽑을 수 있다

교육부, 내년부터 기준 개선

지방대학이 감점 있는 학과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가 손질된다.

교육부는 정원 내 편입학 제도에서 지방대학이 모집 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편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들은 모집 단위별 결

손 인원 범위에서만 편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예컨대 편입학으로 총 20명을 선발할 수 있는 지방대에서 A과, B과에 각각 결원이 10명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은 A과, B과 모두 10명까지만 편입학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대학이 A과에서 15명, B과에서 5명의 편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선 방안은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